

코스피 급락에도 이익 전망은 상향...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이달 사이드카 2거래일에 한 번꼴
올해 당기순이익 전망치 500조
중동 지정학적 변수 지속은 부담
개인·외국인 선호종목 정반대
외국인 순매도, 차익실현 성격
코스피 지분율 지속 확대 흐름

‘이란 사태’ 여파로 코스피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
고 있다. 다만 지수 하락세에도 이익 전
망은 오히려 상향되면서 밸류에이션 매
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수급 역시 비중 축소보다는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지분율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11% 하락하면서 극심한 변동
성을 겪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15
거래일 동안 총 7번의 ‘사이드카’가 발동
됐는데, 4번은 매도 사이드카, 3번은 매
수 사이드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였던 2008년 10월(12회) 이후 월별 기준
가장 많은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이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흔들리는 증시와 원·달러 환율’ 관련 이미지.

약 2거래일에 1번씩 사이드카를 경험하
고 있는 셈이다.

이날도 2.74% 반등하며 6%대 급락했
던 전날과 반전된 흐름을 보였다.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재개 사실을 밝히면서 조기 종전 기대감
확대되자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도
진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가 지속되고 있지만, 코스피의 밸류에이
션은 견조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키움증권에 따르면 2026년 코스피 선행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월 초 609조원에
서 635조원으로 약 4% 상향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3월 첫 주 2거래일 만에 약 20% 가까운
폭락을 통해 전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대외 악재 속에서도 이익 모

멘타이 견조하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이 같은 ‘주가 급락과 이익 전망 상향’의
조합은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
R) 밸류에이션상 진입 매력을 재생성하
고 있다”고 짚었다. 23일 기준 코스피의
선행 PER은 8.5배 수준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코스
피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여전히 상향 조
정되면서 올해와 내년 전망치는 각각
500조4000억원, 580조7000억원에 도달
했고, 추가적인 실적 상향 가능성도 존
재한다”고 분석했다.

물론 중동 지정학적 변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외국인도 이달에만 코
스피에서 22조2574억원을 순매도했으
며, 기관 투자자들도 5조7333억원을 털
었다. 23일에는 외국인도 기관이 하루에
만 약 7조500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날 개인 투자자들은 7조원을 순매
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이달에만
26조2504억원을 사들이면서 2021년 1월
‘동학개미 운동’ 당시의 순매수세(22조
3384억원)를 뛰어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의 선호 종목은 정반대

로 엇갈리고 있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
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
성전자(10조5393억원), SK하이닉스
(3조9920억원), 현대차(2조4670억원) 등
대형주에 집중됐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과 일치한다. 같은 기
간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1조
6083억원, SK하이닉스 3조9124억원, 현
대차 3조798억원씩 사들이며 가장 많이
담았다.

다만 코스피 대형주 대부분이 지난해
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 최근 외국인
의 대규모 순매도세에도 외국인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약 49%, SK하이닉스
는 약 5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순매도는 시장 비중 축소가 아닌 차익 실
현에 가깝다”며 “코스피 내 외국인 지분
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관찰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시에는 과거 최고 수
준인 43%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전쟁에도 ETF 투자 확대... 이익 확실한 기업 선별해야”

삼성증권 SFC 연도대상 시상식 유치자산 13조 돌파

SFC 채널 브랜드 파워·전문성 입증
단순 행사 넘어 ‘비즈니스 축제’ 마련

삼성증권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신라
호텔에서 투자권유대행인(SFC)들의 축
제인 ‘2026 SFC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
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탁월한 영업 실적을 기록한 상위 60명의
SFC를 초청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증권의 제휴영업채널은 최근 눈
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년 업계
최초로 유치자산 10조원을 돌파한 데 이
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유치자산 13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
로, 삼성증권 SFC 채널의 강력한 브랜
드 파워와 전문성을 입증하는 수치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선
‘비즈니스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연
도대상 시상식 및 신규 Black & Gold
인증식을 통해 최우수 성과를 거둔 SFC
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였고, 행사장
에는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홍보 부스가
마련돼 투자권유대행인이 최신 금융 트
렌드와 상품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이어지면서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박경희 삼성증권 WM부장은 “유치
자산 13조원 돌파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SFC 분들의 전문성과 삼성증권의 체계
적인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낸 합작품”이
라며 “앞으로도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영
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계 높은 수
준의 인프라와 교육, 파격적인 보상 체
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인터뷰

정의현

미래에셋증권 ETF운용본부장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로
의 자금 유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
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ETF
투자 수요는 구조적인 흐름이라며 변동
성이 커질수록 실적이 확실한 우량주 중
심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ETF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
르면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381조
3296억원(지난 19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 297조원 대비 84조원 넘게 증가했다.
2020년 52조원 수준이던 시장이 5년여
만에 7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韓 증시, 여전히 저평가된 국면
하락 과도 ETF 매수 등으로 대응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출시
韓 메모리 기업 경쟁력 더욱 부각”

◆ 변동성 장세 대응 전략은 “우량주 중
심 투자”

정 본부장은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된 국면에
있다”며 “기업 실적이 성장하고 있음에
도 주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
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이 짝하
는 곳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지금은 숫자가 확인되는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할 시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이
메트로경제와 인터뷰 중인 모습.
/미래에셋자산운용

점”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산
업의 경쟁력이 부각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이 동맹국 중심으
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선택지
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
할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 등 일부 산업에서 실적 전
망이 상향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 개선이 결국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코스피 변동성
이 확대됐지만 ETF 투자 흐름은 이어지
고 있다. 정 본부장은 “투자자에게 부담이
1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ETF 투자는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투자자들은
하락폭이 과도한 ETF를 매수하거나 지
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방산·우주 관련 E
TF 등에 투자하며 시장에 대응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 환경에서는 우량
주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익이 확실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되면 결국 실적이 뒷받침
되는 기업들이 먼저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최근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에서도 국내 증
시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AI 산업 확산은 반도체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다. 정 본부장은 “AI 서비스 확산은 메모
리 반도체를 AI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만들고 있다”며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이 맞물리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구조
적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출시도
메모리 수요 확대 요인으로 꼽았다. 그
는 “엔비디아가 2026년 하반기 차세대 A
I 가속기를 출시할 예정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핵심 메모리 공급사로 선
정됐다”며 “AI 가속기 세대가 진화할수
록 메모리 장착량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한국 메모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전력기기 산
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
다. 정 본부장은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기기 수요가 빠르
게 늘고 있다”며 “리드타임이 짧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도 증
가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 ETF 시장 확대...레버리지 변동성·
연금 자금 변수

정 본부장은 국내 ETF 투자자들이 유
의해야 할 리스크로 레버리지 상품의 변
동성을 꼽았다. 그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구조적으로 증가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큰 국면
에서는 증가 부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
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배
경으로는 신규 투자자 유입을 꼽았다.
정 본부장은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는

투자자에게 개별 종목 투자는 진입 장벽
이 높을 수 있다”며 “ETF는 분산투자를
통해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장
방향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ETF 시장 확대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
는 “투자자가 ETF를 매수하면 ETF가
결국 기초 주식을 매수하는 구조”라며
“ETF가 없었다면 개별 주식을 직접 매
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체 시장 수
급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
니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투자확대, 장기투자 확산
분배금 지속 성장 구조 ETF 선택
기업, 배당 등 주주가치 높여야”

ETF 시장 확대와 함께 연금 자금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 본부장은
“퇴직연금 투자 확대는 장기 투자 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저비용 장기투자 상품과 저변동성 상품
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 투자자에게는 분배율만 보고 투
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그는 “월 분배율이 높은 상
품만 보고 투자할 경우 원금이 훼손될 가
능성도 있다”며 “분배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의 ETF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국 지수ETF가 연금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
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자
사주 매입 등 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
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